

	보 도 자 료	
	작성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044-960-0417)
	배포	국토연구원 지식홍보팀(044-960-0582)
보도일시	■ 즉시보도가능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

국토연구, 국토정책Brief 제1059호 발간

- 분쟁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전통적인 ‘단기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이하 HDP Nexus)’에 기반한 통합적 재건과 회복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재정적·운영적 제약이 누적되어 구호-재건-개발 간 단절이 반복
 - 한국의 경우 최근 10년(2014~2023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국토·도시 부문 지원 비중이 33%로 나타나 주요 공여국과 유사한 수준의 구조적 집중을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운송·저장 42.3%, 상수도·위생 27% 등 인프라 중심의 지원 구조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9호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를 발간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은 5대 협력 유형(① 생명선 구축 사업, ② 국토·도시 계획 사업, ③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사업, ④ 기후변화와 도시회복력 사업, ⑤ 거버넌스 강화 사업)으로 체계화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향후에는 HDP Nexus 접근을 넘어, 새로운 도시의제(NUA)-국가도시정책프로그램

(NUPP)-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단기 긴급구호가 중장기 국토발전과 경제 회복으로 연계되도록 공간통합과 회복력을 핵심 원리로 하는 한국형 개발협력전략 정립 필요

첨부. 국토정책brief 1059호(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팀 담당자 (☎044-960-0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